다양한 색감이 돋보이는 강운 작가의 '마음산책' 연작.

힐링의 글과 색채로 내 자신부터 위로하고 싶었다

'구름작가' 강운 신작전, 31일까지 동구 김냇과

'관조'에서 '치유'로…다채로운 색감으로 완성

영무예다음1년간 후원…작가 지원 많아졌으면

'구름 작가' 강운의 신작전이 열리는 전시장 입구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사라짐 그 여운의 회화. 치유하려 쓰고 지우며, 명료한 색채로 삶의 질감을 덧댄다."

'마음 산책'을 주제로 광주시 동구 문화공원 김냇과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개인전의 키워드는 작가가 직접 쓴 저 글귀에 모두 포함돼 있다. 변화무쌍한 구름, 촉각을 건드리는 공기의 흔적 등 지금까지 '관조적인 시선'의 작품이 주였다면 이번 신작은 '치유의 시선'을 담고 있다. 캔버스 안에서는 그가 나무젓가락을 깎아 써내려간 수많은 '글'들이 '쓰이고 지워지는 과정'이 거듭됐다. 여러 색을 덧칠하고 문지르고 긁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묘하고 명징한 '색감'이 화면을 장악하며 '삶'이라는 큰 주제를 완성해 낸다. 무엇보다 다채로운 색감은 '색채도감'을 보고 있는 듯 흥미롭고, 저절로 치유가 된다.

이번 개인전은 강 작가에겐 특별하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강 작가는 '1년을 10년 처럼' 쓰며 작업에 몰두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그림에만 마음을 쓰며 대형 신작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 2년간 부산 샌텀시티등에서 대형 개인전을 열며 성과도 있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온전히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작업만을 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

그는 무작정 전국 기업 CEO들에게 메디치가의 이야기를 서두로 한 이메일을 보냈다.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견 작가가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완성해 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거절이 있었고, 답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그러던 중 영무예다음 박헌택 대표에게서 답이 왔고 지난 9월부터 올 8월까지 매달 1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은 아니어서 더욱 감사했죠. 한번인가 작업실에 오셔서도 별 말 없이 뜨거운 열기만 느끼고 간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창작이 나올 수 있을까 부담도 많이 됐어요. 무엇보다 강한 책임감이 느껴졌죠. 제가 잘 해야 또 다른 동료 작가, 후배 들도 메세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지하1층과 2층 전시실과 1층 커피숍에서 만나는 50여점의 추상작품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작은 자기 성찰과 고백이 강한 작품들로 '마음'을 들여다 본다. 작업의 출발은 딸과의 대화였다. 아내이자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겪은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내용을 타이핑을 해보며 마음이 편한해짐을 느낀 그는 이 글들을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을 포함한 신작을 구상한다. 글의 내용은 다채롭다. 딸 아이와의 대화도 있고, 사랑과 이별,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대담, 5·18의 기억 등 개인서사와 공동체 서사가 어우러졌고, 동구 지역의 지도를 바탕에 그리기도 했다.

"인간 마음의 스펙트럼을 그려보고 싶었고, 나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 자신부터 위로하고 싶었죠. 고통과 고민들을 마주하며 질문을 했고 글을 쓰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들것 같아 계속 썼고 나를 치료하고 싶어 지우고 명료해질 때까지 힐링의 색채를 입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억들이 튀어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듯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시각언어'로 표현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다 '시스루(See Through)' 의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여러겹이 겹쳐지면서 예상치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스루의 특성이 흥미로웠어요. 제가 시스루 기법이라고 표현했는데 글씨를 쓰고 지우고, 문지르는 과정, 또 다채로운 색을 수차례 바르는 반복을 통해 여러 '겹'이 생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캔버스에서 만나는 내용은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죠. 관람객들이 자신의 마음의 여백을 들여다보고, 각자의 상처를 마주하며 치유하는 여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무엇보다 독특한 '색감'이 눈에 띈다. 수백번의 긁어냄과 덧칠을 통해 때론 우연이 가져다 준 의도하지 않은 컬러를 얻어내는 성과도 있었고 강렬한 녹색 작품 등 전시작에서는 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그는 물감이 마르기 전, 새로운 색을 화폭에 얹었을 때, 그 위에서 스스로 섞이며 만들어내는 '마음의 색'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다.

"지금도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삶의 태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가 자신만의 컨셉을 가지고 작업하는 건 당연합니다. 내 컨셉을 정확히 작업화하는 게 중요하죠. 메디치가가 없었다면 문예부흥이 있었을까요, 테오가 없었다면 고흐가 있었을까요. 예술가를 지원하는 메세나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강 작가는 작품에서 힐링과 치유를 얻는다며 거의 매일 전시장을 찾아와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객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마음산책' 전을 열고 있는 강운 작가.

중국 수인판화를 만나다

중국 석뢰 작가 '朝花不夕拾·조화불석습'전

14일까지, 담양 '아트 갤러리 14'

'조화불석습-1'

중국 출신 석뢰 작가 수인판화전이 오는 14일까지 담양 아트 갤러리 14에서 열린다.

'朝花不夕拾·조화불석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동양식 기호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전통 이미지를 수인의 색 조각과 결합해, 동양의 미적 감성을 표현해 내고 있다. 모두 최근작들로 현대수인화 제작에 전통적인 인쇄언어를 적용한 작품들이다.

수인(水印) 판화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물감의 용해 재료로 사용해 찍는 판화로 중국 전통 수인판화는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매력을 풍긴다. 석뢰 작가는 1000년간 계승돼온 전통 수인판화에 현대 회화 언어를 가미해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천진미술학원 판화과를 졸업한 석뢰 작가는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학교에 교수로 재직중이다. 현재는 한국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박사과정에 유학중이다.

제3회 광주 국제 장서표 및 소형판화 비엔날레(최우수 작품상), 허원 청년 판화 창작전(신예상, 영국 목판상) 등에 참여했으며 노신 기념관, 대만국립박물관, 영국목판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헝가리 작곡가들의 음악으로…오지희 첼로 리사이틀

10일 금호아트홀…객석 거리두기

헝가리 출신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지희 첼로 리사이틀이 오는 10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다비드 포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품집 11번', 졸탄코다이의 '헝가리안 론도', 에른스트 폰 도흐나니의 '루랄리아 헝가리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8번 내림나단조' 등이다.

오지희는 9세에 첼로를 시작했으며, 김유정을 사사했다. 한국·독일 브람스협회 주니어콩쿨, 호남예술제 등에서 입상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 받았고,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클러스터챔버앙상블 등과 협연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중학교 졸업 후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에 진학, 예비과, 학사, 석사과정을 밟았고, 이후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했으며, 우크라이나방송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에서 스트링 듀오 빈(WIEN)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민주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오페라코치 및 가곡 반주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반주협회 정회원, 한양대, 성신여대 성악과 반주강사로 활동중이다.

공연은 객석 거리두기로 진행된다. 전석 초대. 문의 010-3421-391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단체 긴급지원 2차 공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6일까지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사업' 일환으로 147개 단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차 대상은 단체별 1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광주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음악, 무용, 연극, 시각, 문학, 다원, 전통 등)로서 2020년 이전 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최근 3년간(2017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총 2건 이상 활동이 증명돼야 한다. 공모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운영비 보조단체 및 개인사업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생활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인 1~2인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 형태의 단체, 생업으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문의 062-670-7443, 7445. /박성천 기자 skypark@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고향 광주로 예술인들 초대

7일 백순진·14일 요조 등 5차례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사진〉이 고향인 광주로 예술인들을 초대해 펼치는 공연이 오는 7일부터 5차례 열린다.

지난 여름부터 호랑가시나무창작소(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열리고 있는 '커밍홈 Vol.2 친구, 우정의 정원으로'는 뮤지션들에게 광주를 소개하고 광주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는 공연이다.

7일에는 밴드 4월과 5월 출신 싱어송라이터 백순진의 공연이 열린다. 이어 가수, 진행자, 책방 주인, 저자 등으로 활동중인 뮤지션 요조의 무대가 14일 마련된다. 21일에는 가수 조동희가 관객과 만나며, 25일에는 김소연 시인과 이제니 시인이 우정에 관한 시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마지막 공연은 오는 11월6일 최고은밴드의 무대로 장식한다.

한편, 2010년 첫번째 EP(미니앨범)를 내며 데뷔한 최고은은 국내 가수 중 최초로 영국 음악 축제인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 세 번 초청받았다.

공연 입장권은 네이버 예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10-2321-250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227-9940 062)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752-9940